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한미 FTA 농대위) 발족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한미 FTA 농대위)가 3월 9일 오후 1시 국회에서 발족 하였으며, 한미 FTA 농대위 발족식 이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06년 3월 6일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 및 토론회

□ 참여단체 (2006. 4. 25 현재)

○ 농민단체 :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대한양계 협회, 대한양돈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버섯생산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전국채소생산자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

자중앙연합회, 한국 4-H 본부, 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양록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인삼경작자협의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포도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 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내륙지수산물중도매인연합회,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한살림, 한국생협연합회, wto 국민연대
- 농관련 노조 :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한국농촌공사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진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림부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산물품질관리원지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농협중앙회 지부,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 개인 : 김동희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 엄홍우 한국농어민신문사장, 장원석 단국대학교(전 농특위원장), 배종렬 전남서남부채소농협조합장(전 전농의장), 정영일 전 서울대학교수, 원철희 전 농협중앙회장, 박덕영 전 한농연회장, 유동준 한국단미사료협회 회장, 김충실 교수, 송기호 변호사

□ 발족선언문 -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선언문

이 땅 7천만 민족의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생명산업인 농어업의 주인인 우리 400만 농어민들은, 오늘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족을 선언한다.

우리 농어업은 물론 전체 국민경제와 관련하여 한-미 FTA를 둘러싼 현 상황은 너무나도 엄혹하다. 미국은 거의 모든 농수산물의 관세 인하 및 철폐와 함께 비관세 장벽의 무력화를 관철시켜, 농어업은 물론 전체 우리 국민경제를 자국의 이익에 맡도록 재편하려는 야심을 벌써부터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400만 농어민들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농어업을 키워내고 지키고자 피땀 흘려 노력해 왔다. 하지만 우리 농어업과 농어민은, 세계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정부 관료들과 재벌들의 무책임한 개방 논리 속에서 포기와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더욱이 미국 정부 추산 최대 8조 8천억원 이상의 농업 부문 피해가 우려됨에도, 정부는 '대외신인도 향상' 등의 명분만 내세우며 경제적 효과마저 불분명한 한-미 FTA를 강행 추진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한-미 FTA 본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 쿼터 축소는 물론 자동차 및 의약품 등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양보함으로써 총체적인 협상력 및 전략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정부는 상품·서비스 시장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측의 부당한 요구에 수세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농어

업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총체적 위기를 초래할 우려마저 높은 한-미 FTA를 어떠한 정보 공개나 대국민 동의조차 없이 강행함으로써, 한-칠레 FTA 이후 또 다시 비민주적인 밀실·굴욕협상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400만 농어민들은, 통일 시대 7천만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어업을 반드시 지켜내고 비민주적이며 반농어민적인 잘못된 한-미 FTA 협상을 기필코 저지하려는 사명감으로 하나로 뭉쳐 싸워나갈 것이다. 특히 2003년 9월 우리 농어업·농어민의 생존권 수호를 위하여 이국 땅 멕시코 칸쿤에서 자결하신 이경해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400만 농어민들은 강력한 연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농어민 대표들은,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족을 계기로 이 땅의 농어업은 물론 피땀으로 일구고 세운 국민경제의 총체적 붕괴만을 초래하게 될 한-미 FTA를 반드시 막아냄으로써, 민족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이 나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생존권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반드시 지켜나갈 것임을 엄숙히 결의한다.

2006년 3월 9일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참가자 일동
(자료출처 : 농민연대 홈페이지(www.nongminpower.org))



사과 고품질 세미나 성황리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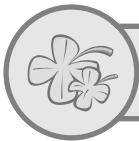
한국사과고품질연구회(회장 서석환)는 지난 3월 8일(수) 10시 경북 의성군 봉양면에 있는「우리농배움터」에서 80여명의 회원 및 사과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사과고품질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회사에서 서석환 회장은 본 연구회를 설립한 고 송재득 선생의 뜻을 받들어 안전하고 맛있는 사과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사과농가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본회 강춘성 회장은 격려사에서 이웃 중국에서 우리의 기술과 품종을 가지고 대규모 사과농사를 짓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우리 사과농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대구대학교의 유관식 교수가 “엽면시비 이

용기술”에 대한 강의를 있었으며, 점식식사 후 한국 인칼균연구소 정재환 소장이 “친환경 농업의 대안인 인칼균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의와 인칼균 생산에 대한 시연회가 있었다.



2006년 3월 8일 의성지방농민대학-사과 고품질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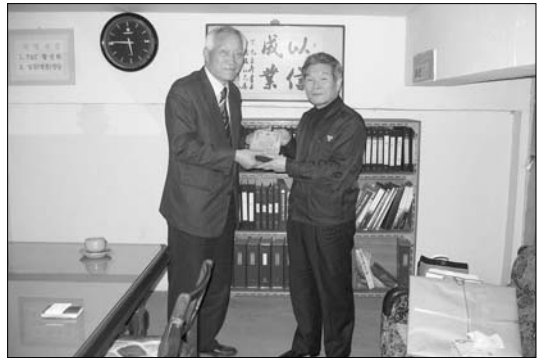


박덕준 지도위원에 감사패 전달

확고한 농심과 애정을 가지고 본 협회 초창기부터 참여하여 중앙이사를 역임하였던 현 박덕준 지도위원에게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지난 3월 8일(수) 오후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회 강춘성 회장이 직접 부산현장에 내려가서 협회 현황을 설명하고 농업기술진흥관 수호성금과 상허 및 성천선생

홍상건립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5백만원의 성금을 낸 박덕준 지도위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지도위원은 “내가 이런 것을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고 우리 협회의 발전과 선생들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농업이 융성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그만 성의를 표한 것 뿐입니다.”고 겸손해

하였다. 지금도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가이지만 자가용이나 핸드폰 없이 버스를 이용하는 절약 정신과 매일 직원들을 퇴근시킨 후 맨 마지막으로 직접 회사를 점검한 후 퇴근하는 솔선수범과 근면정신이 오늘날의 태화라텍스 회사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 타사가 따라올 수 없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세계 최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박지도위원은 우리농업에 대한 애정과 걱정 어린 심정을 표현하였다.



2006년 3월 8일 박덕준 지도위원 감사패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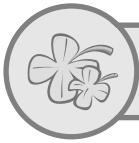
사천시 지방농민대학 “흑염소 세미나” 성황리 마쳐

사천시지회(지회장 안후상) 주최로 지난 3월 24일 (금) 흑염소 산업 발전을 위한 “흑염소세미나”가 경남 사천의 대밭고을에서 70여명의 회원과 염소산업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하였다. 이날 개회식에서 안후상 지회장은 우리 고유의 전통축종으로 흑염소가 자리 잡아 왔으며 보양식으로 애용되었지만 현재는 수요가 줄어 가격이 떨어져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한 뒤 이제는 흑염소의 유용성을 통한 수요처 개발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강춘성 회장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기후조건과 산악이 많은 환경조건을 감안할 때 흑염소가 가장 알맞은 축종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유기축산이 가능한 축종은 염소뿐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며, 향후 염소농가가 힘을 합하여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정책에 건의하며, 지구책을 강구한다면 흑염소 산업의 전망은 밝을 것이다 라고 힘주어 이야기 하였다.

개회식에 이어 대구대학교 송해범 교수의 “흑염소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설명에 이어 축산연구소 최순호 박사의 “고품질 흑염소 생산과 유기축산 실천기술”에 대한 발표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다. 발표에 이어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끝난 후 강춘성 회장이 직접 사육한 흑염소 요리 시식회가 있었다.



2006년 3월 24일 사천시지방농민대학-흑염소 세미나



남북 농민단체 대표자회의 개최

지난 4월 4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남측의 6.15 농민본부 서정의 단장, 본회 강춘성 회장을 비롯한 농민단체 관계자 35명과 북측의 농근맹 강창욱 위원장, 허덕복 위원, 유경배 위원, 백석 국제부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 농민단체 대표자회의가 개최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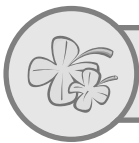
이날 11시에 남측의 전기환 공동집행위원장과 북측의 리춘선 위원의 개회 선언에 이어 기본연설, 토론문 발표, 공동결의문 발표로 공식행사가 진행 되었다.

특히 남북 농민대표자들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6.15공동선언 실천에 앞장서서, 전쟁을 반대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반전 평화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 나가며, 민족 대단합 운동을 힘 있게 벌려 나갈 것을 굳게 결의 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12시에 폐회했다.

이어 12시부터 남북동석 식사가 강춘성 회장님의 건배사로 시작되어 2시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오후 2시 30분부터 선죽교와 고려개성박물관을 관람하고 오후 5시경에 아쉬운 남북농민대표자들은 아쉬운 이별을 하고 우리 일행은 서울로 향했다.



2006년 4월 4일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6년 남북농민단체 대표자회의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Ⅱ)』심포지엄 개최

- 도시은퇴직자의 열렬한 관심속에 성황리 마쳐-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회장 강춘성)는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소장 이한기)가 공동으로 2001년에 이어 두 번째로 4월 13일(목) 오후 2시부터 aT센터에서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Ⅱ』

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21세기 장수시대를 맞이하여 도시민이 은퇴 후 농촌에서 건강하고 보람 있는 인생 이모작의 가능성과 그들의 전문성과 경륜을 접목하여 농촌지역 활성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개회선언에 이어 강춘성 회장과 이한기소장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황민영 농특위 위원장의 축사로 개회식이 진행되었다.

상지대학교 김성훈 총장의 '장수시대의 도래와 인생의 이모작 설계', 한신대학교 김주숙 명예교수의 '도시은퇴자의 전문성과 경륜을 농촌 활성화의 핵심역량으로', 서울대학교 이정재 교수의 '국민의 건강복지 향상과 농촌정주' 라는 제목의 주제발표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이어 퇴직 후 시골에 정착하여 텃밭 등 자급자족적 농업을 실천하면서 건강하고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는 김영진(전 현대건설 상무), 나영진(산너머강촌 대표), 송학운(자연생활의 집), 권혁

천(진안) 4명의 농촌 현장속에서 피부에 와 닿고 흥미있는 사례발표가 있었다.

끝으로 박대식 박사(농경연)가 좌장으로 참여하여 진지하게 지정토론과 청중토론으로 이어져 예정시간을 2시간이나 넘겨 오후 7시에 심포지엄이 종료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발표자와 참석자가 저녁식사를 하면서 행사장에서 못 다한 정담을 나누었다.

본 심포지엄은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를 희망하는 도시 예비은퇴자나 노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켜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2006년 4월 13일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 심포지엄의 이모저모





“축” 농진관 두 번째 소송도 대법원에서 승소

-새로운 협회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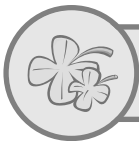
농업기술진흥관(이하 농진관)의 “소유권 이전 말소의 건” 첫 번째 소송은 2002년 11월 22일자로 대법원에서 협회가 승소하였다. 그러나 원고(김숙진)은 2003년 4월 다시 “소유권 확인 및 이전의 건”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2년 2개월 동안 총 9차례의 변론이 진행된 결과 2005년 6월 10일자 지방법원판결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 측은 이에 불복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2차례의 변론결과 2005년 12월 1일자 고등법

원의 판결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또 다시 원고측이 2005년 12월 19일자로 대법원에 상고 하였으나 지난 2006년 4월 14일자로 대법원에서 원고(김숙진)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두 번째 소송에서도 본 협회가 최종 승소 하였다.

이 결과는 그 동안 회원 여러분들이 농진관 수호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준 결과이며 이 기쁨을 모든 회원 동지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앞으로 본 협회는 제2의 창립 기치를 높이 세우고 회원 동지들의 중지를 모아 획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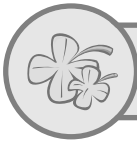
「초록텃밭」주말농장 개장식 가져

본회가 도농녹색교류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록텃밭」주말농장 개장식이 150여명의 분양받은 회원과 강춘성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15일(토) 농장에서 있었다. 강춘성 회장은 인사말에서 개방화로 인하여 최대 위기상태이며 특히 수입 쌀의 시판이 시작됨에 따라 시중의 쌀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며 농가의 쌀 재고는 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농촌은 도시민을 도시의 농업인을 위한 상생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뒤 본 농장은 도시민에게 우리 먹거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밑바탕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이어서

초록텃밭 개장을 축하하고 회원이 짓는 텃밭농사가 잘되길 기원하는 떡 절단식과 다과회가 있었다.



2006년 4월 15일 초록텃밭 개장식



중앙회장, 전국 각 시·군 조직 순회간담회 개최



2006년 4월 19일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지역순회 간담회 (고성, 속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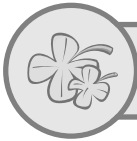
본회 강춘성 회장은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민단체로 거듭나고자 지난 4월 17일부터 강원도 철원을 필두로 순회간담회를 시작하였다. 특히 이번 순회는 회원이나 교육수료생의 자택이나 농장 또는 도농교류사업 현장에서 개최함으로써 회원들의 농촌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상을 파악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또한 회원과 교육생들의 생생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협회의 새로운 장기발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순회는 하루에 오전9시, 오후 1시, 오후4시 등 3개 시군을 순회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1일까지 강원도 각 시군 순회를 마쳤으며,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충북 각 시군순회를 마쳤다. 그리고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대전·충남 관내 순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어서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서울·인천·경기도를 순회하고 계속해서 전남북, 경남북, 제주도 순서로 순회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순회간담회를 마치고 각 시도별 연찬회를 개최하여 협회 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4월 26(일) 충북 지역순회 간담회(청원)



파주 김교화 회우 “쇠꼴마을” 축제, 임진강 황포돛배 운영으로 많은 호응

농촌이 힘들다고 떠나는 현실 속에서 쇠꼴이 풍성한 두메산골에 30년 전부터 어린이와 도시민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 갖은 역경과 노력을 기울여온 김교화 회우는 지난 4월 30일 “억만송이 배꽃축제”를 열었다.

쇠꼴마을은 수생식물원, 썰매장, 목공예방, 허브 온실, 박물관, 농사 체험장, 수영장등 다양한 볼거

리, 느낄거리, 쉴거리 및 먹을거리 등을 가지고 방문객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특히 금년 4월부터 한반도 중심의 역사가 있고 지척에 북한이 있는 임진강에 황포돛배를 띄워 놓고 쇠꼴농장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하여 도시민에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연락처: 031-595-0123)



도시민웰빙농사 교육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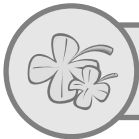
지난해에 이어 3번째인 도시민웰빙농사 교육이 지난 4월 27일 시작하여 1달 과정으로 실시한 본 교육은 도시민에게 농사기술과 농촌정주 방안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농촌에서 건강하고 보람된 생활의 가능성을 모색케 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도·농녹색교류운동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열고 있다.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금년은 정부지원 사업으로 6차례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직장인도 참가 할 수 있도록 매주 목요일, 금요일 저녁에 농업기술진흥관에서 다양한 농사기술, 약초재배, 농산물 전통가공, 농촌정주 지원시책 등 이론교육을 실시하며, 토요일은 강일동에

위치한 “초록텃밭” 주말농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한다. 마지막 주 토요일은 농촌으로 정주한 농가를 찾아보는 견학 일정이 있다.



2006년 4월 27일 도시민 웰빙농사 교육



충북연합회 이상수 회장, “제9회 상수허브랜드 대축제” 열어

국내 최대 규모의 허브농장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수허브랜드의 5월 대축제 개장식이 지난 5월 2일(월) 11시 많은 내외빈이 참가한 가운데 있었다. 본회 강춘성 회장과 최동주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상수 허브랜드 대표로서 본회 충청북도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천연물질에 대한 건강과 미용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도

시 소비자들로 인하여 허브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일로에 있다고 강조하고, 이제는 우리농업도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힘주어 이야기 하였다.

첫날 개막식에 이어서 5월 5일은 허브 어린이날 행사, 그리고 계속해서 31일까지 허브와 원예치료강연, 아로마 피부미용 및 치료강연, 스승의 날 행사, 허브와 건강 및 건강요리 강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가 함께 열린다. (연락처 043-277-6633)



성천문화재단 창립 15주년 및 『나라사랑』출판기념회 개최

오는 5월 4일(목) 오후2시에 성천문화재단 강의실(여의도 라이프오피스텔 1310호)에서 류인걸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와 강영훈 전총리,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유승우 이천시장을 비롯한 약 8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하여 창립 15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특히 이날은 재단 설립자이신 성천 류달영 선생의 탄신 96주년 기념일이어서 성천 일대기 영상물 상영과 성천 류달영 전기 『나라사랑』출판기념식이 함께 개최되어 성천을 그리는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성천 류달영 전 회장 흉상에 헌화

3월

- 7일 전국농민연대 정기대표자회의(09:00)
농수산물유통공사 농민단체장 초청 간담회(11:00)
- 8일 사과고품질 세미나(10:00)
- 9일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 발족식(13:00)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 토론회(14:00)
- 10일 통일농수산사업단·통일농수산포럼 정기 합동총회(17:00)
2006 통일농수산 후원의 밤(18:00)
- 16일 밀양친환경도매시장 개소식(11:00)
- 17일 한국농어민신문 2006농업정책 및 농산업 창·취업박람회 자문위원단 설명회(11:00)
본회 회장단 및 시·도연합회 회장단 간담회(13:00)
농림부 한-미 FTA 및 DDA 농업협상 설명회(16:00)
- 24일 본회 사천지방농민대학-흑염소 세미나(10:30)
- 30일 농어민신문 2006농업정책 및 농산업 창·취업 박람회(10:30)

4월

- 3일 농림부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 및 조정을 위한 농업인 단체장 초청 간담회(10:30)
- 4일 6.15 농민본부 남북농민대표자회의(07:00)
- 10일 농어업특위 농정추진상황 점검 및 119조 투융자사업 평가토론회(14:00)
- 13일 본회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II) 심포지엄(13:30)
- 15일 본회 주말농장 “초록텃밭” 개장식(14:00)
한-미 FTA저지 4.15범국민대회(14:00)
- 17일 본회 강원도 지역순회간담회 - 철원군, 화천군, 춘천시
- 18일 본회 강원도 지역순회간담회 -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 19일 본회 강원도 지역순회간담회
-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 20일 본회 강원도 지역순회간담회 - 정선군, 평창군, 영월군
- 21일 본회 강원도 지역순회간담회 - 원주시, 횡성군
- 24일 본회 충청북도 지역순회간담회 -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 25일 본회 충청북도 지역순회간담회 -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 26일 본회 충청북도 지역순회간담회 -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 27일 본회 충청북도 지역순회간담회 - 영동군, 금산군
- 27일 2006년 제1차 도시민 웰빙 농사교육(18:30)
- 28일 본회 충청북도 지역순회간담회 - 대전광역시, 연기군
한국가톨릭농민회 국제세미나 및 국제가톨릭농민운동연맹 총회